



**농협 김제시지부 등, '농촌 왕진버스' 운영**

농협 김제시지부(지부장 조원석)는 17일에 전북농협(본부장 김영일, 김제시(시장 정성주), 공덕농협(조합장 문용수)이 함께 공덕 두루누리 활력센터에서 '농촌 왕진버스'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농촌 왕진버스는 병의원, 약국 등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 지역 주민들에게 양·한방 진료, 구강검진, 검안과 돌보기 지원 등 종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지방자치단체·농협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이날 왕진버스는 공덕면 주민 200명을 대상으로 원광대학교 전주한방병원(병원장 주종철) 의료진 20명이 무료 검진과 한방치료, 한약재 처방 등 고품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이오비이오에서 구강검진과 교육을, 대비치 수송장에서 검안·돌보기를 지원했다.

또한, 농이촌종합지원센터서 공예 프로그램 및 예술공연, 음식나눔 등을 함께하며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문용수 조합장은 "앞으로도 지역주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업을 펼쳐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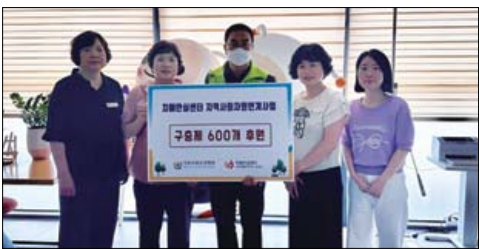
**장수농협 등, '농촌 왕진버스' 운영**

장수농협(조합장 김용준)과 농협중앙회 장수군지부(지부장 김준오)는 지난 16일 장수농협에서 관내 농업인, 주민 200여명을 대상으로 '농촌 왕진버스'를 운영했다.

농촌 왕진버스는 농림축산식품부·농협중앙회·전북특별자치도·장수군이 함께 실시하고 있는 농촌 주민 건강돌봄 사업으로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촌지역에 의료지원, 검안(돌보기 지원), 구강검진 등을 윈스투프로 지원하는 종합의료 서비스이다.

한편 이날 진행된 농촌 왕진버스는 고흥시량주부모임이 지원봉사에 참여하는 등 원활한 진료지원으로 진료를 받은 농업인들과 지역주민들은 진료서비스에 매우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다.

/장수=곽노태 기자



**김제 가족사랑요양병원, 치매안심센터에 구충제 후원**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가족사랑요양병원 효도리사회사업단(김제시 하동 소재)이 17일 치매 대상자를 위한 나눔으로 구충제 600개를 김제시 치매안심센터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구충제는 맞춤형 치매 사례관리사업과 연계해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 및 사례관리대상자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가족사랑요양병원 관계자는 "구충제 후원을 통해 치매 어르신과 가족분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관내 치매 어르신들에 대한 나눔과 관심을 지속해서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도움이 필요한 치매 대상자와 가족들을 위한 후원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남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남원의료원과 협약**

남원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17일, 남원의료원과 협약 맺고 17일부터 건강검진이 필요한 관내 청소년 76명(학교 밖 청소년 30명, 취약계층 청소년 46명)에게 무료 건강검진을 지원한다.

검진 항목은 △기분 상담 및 진찰 △신체 계측 △혈액검사 △구강검진 △소변검사 △영양검사 등으로, 희망 청소년에 따라 △부인과 진료도 받을 수 있으며,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사후관리까지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어 관내 청소년의 건강복지가 향상될 전망이다.

정일신 센터장은 "학교 밖, 그리고 취약계층 청소년들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위험한 질병을 사전에 감지하고 치료받아 건강하게 꿈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한마음으로 무주농업 발전을!"**

**무주군 농민회 한마음 전진대회 개최**

무주군 농민회 한마음 전진대회가 지난 17일 무풍면 산자유촌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농민회가 걸어온 길을 되짚어 보고 나아갈 방향을 새롭게 정립한다는 취지에서 진행된 것으로, 기념식과 화합행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농민회와 함께 지속 가능한 무주농업, 발전이 가능한 농촌 생활 보람 가득한 농업인의 삶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주군 농민회는 농업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책 모색과 농민의 권익 보호, 그리고 우리 농산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농업인 단체인 무주읍과 무풍면, 설천면 회원 6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정구 회장은 "한마음 한뜻으로 무주농업의 발전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이 자리가 농민회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시안전보안관, 어린이 놀이기구 청결 안전점검**

전주시안전보안관 김인순 대표와 보안관 김주섭·조정일·정용기·이영춘·이덕례·이영욱·이정식·백은희씨 등이 더운 날씨 속에 어린이 놀이기구 청결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여름철 전염병 등 예방 차원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놀이기구에 먼지가 있어서 물청소와 도색이 필요하며 드물게는 주변에 쓰레기가 있어, 보안관들이 이를 정리했다.

/김재훈기자



**완주JC, 운주면 수해현장 찾아 피해복구 나서**

완주청년회의소회장 김현석씨가 지난 16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운주면 일원을 찾아 긴급 수해복구에 나섰다.

이날 완주청년회의소는 생수, 라면, 생필품 등 약 150만 원 상당의 구호품을 전달하고, 수해피해를 입은 가구를 찾아 복구에 구슬땀을 흘렸다.

김현석 회장은 "이번 폭우로 인해 관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해 청년들이 두 팔을 걷어붙이게 되었다"며, "수해지역이 조속히 복구되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동참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완주 청년회의소(JC-KOREA)는 창립 이후 꾸준히 봉사활동을 펼쳐왔으며,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완주=염재복 기자



**남원여성의용소방대, 소방대원 삼계탕 나눔 행사**

남원소방서(서장 안승주)는 남원여성의용소방대(대장 허경이)에서 초복을 맞아 15일, 16일, 17일 점심에 무더위에 지친 대원들을 위해 구내식당에서 닭 200마리를 준비해 삼계탕 나눔행사를 가졌다.

이번 나눔은 무더위 속 출동과 훈련으로 체력이 소진된 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것으로, 더위를 날려줄 수밖도 함께 준비해 전 직원에게 제공했다.

허경이 대장은 "폭염과 후유에 출동과 비상근무 등으로 고생하는 소방대원들을 위해 힘이 되고자 삼계탕 나눔 행사를 마련했다"며, "소방대원들이 정성으로 만든 삼계탕을 맛있게 드시는 걸 보니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기자

**남원 덕과면 지사협, 여름나기 선봉기 지원**

남원시 덕과면 지역사회보정협의체(이하 협의체)는 최근 하절기 폭염에 대비해 관내 취약 가구에게 시원바람 행복바람 여름나기 선봉기 지원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협의체 특화사업의 하나로, 올해 긴 장마와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관내 취약계층 복지 향상 도모와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및 온열질환 예방과 시원하고 안전한 한여름 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협의체 후원금으로 진행했다.

한 어르신은 "고장 난 선풍기로 폭염주의보에 걱정이 많았는데 집에서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게 되어 기쁘고 감사하다"고 전했으며, 협의체 김부식 위원장은 "이웃이 온열질환을 겪는 일이 없도록 다방면으로 지원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대, 제주도 일대서 하계 국토대장정 마쳐**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제주도 일대에서 진행된 하계 국토대장정을 무사히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 8일 학생회관 광장 앞에서 제51회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 학우 등 총 33명의 대원이 참석한 가운데 총 9일간의 국토대장정에 올랐다.

이번 국토대장정은 비대위 주관하에 《젊음의 발걸음》이란 주제로 제주항에서 시작해 서귀포시까지 총 140km를 걷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무

학생들의 발걸음을 지켜본 서귀포시 남원읍 주민 김 모씨는 "습하고 더운 날씨와 장맛비 속에서도 먼 길을 걸어 왔더니 대견하다"며 "제주도를 걸으며 친구들과 우정도 쌓고, 제주도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가져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 최도진 비대위원장(인문콘텐츠대학 학생회장)은 "이번 국토대장정은 젊음의 발걸음을 주제로 대한민국의 아름다움을 담고 있는 제주도에서 전주대 학우들이 하나 돼 서로 의지하고 응원하며,

우리 땅의 소중함을 느끼는 좋은 경험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임정영 총동문회장을 비롯한 동문회 임원들도 국토대장정 기간 제주도를 방문, 후배 학생들의 도전을 응원했다.

제주도를 직접 찾은 박진배 총장은 "씩씩한 우리 학생들의 모습이 너무 자랑스럽다"며 "대학 생활에서의 소중한 의미 있는 경험을 밀가루 삼아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수퍼스타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보호공단 전북, '아름다운 동행 THE 안전한 대한민국' 현판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지부장 황경주)는 17일 부부수선(대표 김병권)과 (주)통일강정평가법인 호남지사(지사장 김현태)를 '아름다운 동행 THE 안전한 대한민국' 제64, 65호로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북지부협의회(회장 한명욱)에서 주관하는 '아름다운 동행 THE 안전한 대한민국'은 지역 사회 보호 대상자들의 자립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눔을 통한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황경주 지부장은 "정기 후원을 약속한 김병권 대표와 김현태 지사장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라며, "조성된 후원금은 보호대상자들의 삶을 개선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보호사업에 뜻을 가진 후원업체들과 함께 선한 영향력을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은행 순창지점, 취약계층 '시원키트' 기증**

전북은행 순창지점이 지난 16일 순창군청을 방문해 관내 취약계층에게 써달라며 '시원(COOL)키트' 80상자(250만 원 상당)를 기증했다.

'시원(COOL)키트'는 여름철 무더위에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홀겐아블, 쿨매트, 선풍기 등 3종 세트로 물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더운 여름을 보내야 하는 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탁된 상품은 전라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무더위에 취약한 독거 어르신 등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 전달될 예정이다.

전상익 전북은행 부행장은 "이번 기탁을 통해 지역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 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김제농협, 농가주부모임과 건강한 여름나기 나눔 행사**

김제농협(조합장 이정용)은 17일 농가주부모임과 함께 장마와 무더위로 고생하는 관내 취약농가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행복나눔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정용조합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농가주부모임 회원들의 정성이 가득 담긴 삼계탕을 비롯하여 열무김치, 말반찬, 여름 메밀배게 등 선물 꾸러미를 관내 70명의 어르신들에게 전달하며 따뜻한 온정을 나눴다.

김옥자 농가주부모임 회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관내 어르신들에게 건강하고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하고자 고생해주시는 회원들과 함께해주시는 김제농협 임·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정용 조합장은 "마음은 더하고 어려움은 나눌수록 기쁨은 배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